

◎ 국내기업 근무 외국인 초청 해외기술인력 워크숍 개최



협회는 한국산업기술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12월 15~16일 이틀간 '2008 해외기술인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E7비자(IT대상 사증)를 취득해 국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초청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IT카드 추천 해외IT인력과 골드카드 추천 해외기술인력, 해외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인사담당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IT카드(www.itcard.or.kr)란 IT분야 해외우수인력발굴 및 국내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협회가 발급하는 외국인 고용추천 제도다. 워크숍에서는 해외기술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한편, 글로벌 인력 채용전략에 대한 특강과 해외인력 노무관리 특강을 통해 고용기업 담당자에게 해외인력 채용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소개를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와 해외기술인력 간 커뮤니티 형성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우리 고유의 대북을 직접 배우는 체험시간과 예절교육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 협회,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 위한 중국경제 세미나 열어 '글로벌 경제위기, 중국은 한국경제의 열쇠인가' 주제로



협회는 10일 서울 센트럴시티 크리스탈홀에서 IT기업 글로벌 경영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중국은 한국경제의 열쇠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4개의 강의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진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경제정책 및 IT산업동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IT기업의 생존 및 글로벌 경영전략수립에 가이드라인을 제공코자 개최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기부양책과 한국경제'를 주제로 중국에 붙어 닦친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리하고 중국 현지의 경기부양책 내용과 전망, 주변국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을 전달했다. 이어 최기철 在상해/화동 한국IT기업협회 회장은 '중국시장에서 앞으로 먹힐 IT분야 발굴하기'를 주제로 중국의 과거 및 현재 IT시장 현황, 중국IT산업의 기술/가격 경쟁력, 미래 중국 IT시장 공략 분야 등을 리뷰했다.

한편 '연변을 활용한 동북3성 진출전략'을 발표한 유대진 연길IT밸리유치관리위원회 회장은 중국-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의미로서의 연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연변을 한국의 IT기지로 활용하기, 중국연변을 기반으로 동북3성 공략하기 등의 정보를 발표했다. 또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중국 지재권 경영'의 주제발표를 펼친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중국팀장은 IT 중심의 중국 해외지재권 침범 사례 및 중국에서의 한국IT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등 실질적인 팁을 제시해 세미나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IT산업 관심 기업 CEO 및 관련업무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해 중국시장에 대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 '2008 벤처기업인 송년의 밤' 개최

사랑의 쌀 220포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협회는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벤처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탐 흘린 회원사 대표와 각계의 주요 인사를 모시고 '2008년 벤처기업인 송년의 밤' 행사를 12월 10일 반포 센트럴시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8년 벤처산업 전반 및 협회 성과를 회고하는 한편,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서승모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경영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벤처기업을 격려하는 홍석우 중기청장의 축사와 함께 열렸다. 이어 2008년 협회가 벤처기업, 정부, 유관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벤처산업의 성장 인프라를 만

들고, 벤처기업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영상물 상영이 이뤄졌다.

또한 벤처기업의 활발한 사회공헌실천의식 제고를 위해 제정된 벤처 사회공헌상 시상 및 우수사원 표창, 모범근로자상이 수여됐다. 벤처 사회공헌상의 영광은 기업부문에 G마켓(대표 구영배), 네오위즈(대표 나성균), 기업인 부문에 루펜리 이희자 대표, 플랜티넷 김태주 대표에게로 돌아갔다. 우수사원상은 아이테크 송화섭 과장, 이지웰케어 윤채원 과장, 유로코스텍 이승우 실장 이상 3인, 모범근로자상은 서울 벤처기업 입주기업인 헬스피아 이규원 실장, 애드씨커뮤니케이션 김선철 과장이 수상했다. 2부 행사에서는 코감 김흥태 대표의 멋진 기타연주로 시작되어 각 테이블별 게임 및 노래자랑 등 이벤트가 진행되어 벤처기업인들이 하나 되는 흥겨운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이번 송년의 밤은 화환 대신 사랑의 쌀을 기부 받아, 총 41개 기업이 1,2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 220포를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서승모 협회장은 "모금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벤처기업인이 나눔의 뜻에 동참하였다"며 "벤처기업인의 마음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최고경영자 총동문회에서 모은 현금 3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총동문회 이태금 회장은 "어려울수록 서로 돕는 마음이 필요하기에 작지만 나눔에 동참하고자 참여했다"고 밝혔다.